

## 빌리 그레이엄 목사 장례식에서 김장환 목사, JP 메시지 인용 추도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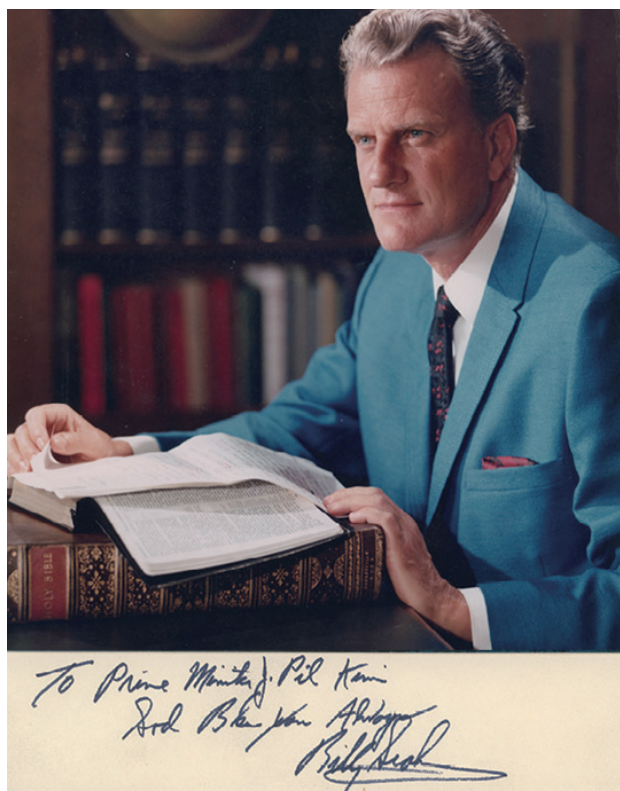
복음주의 대부로 불리는 미국 빌리 그레이엄(Billy Graham) 목사의 장례식이 지난 3월 2일 그의 고향 노스 캐롤라이나주 샬럿에서 엄수됐다. 이날 장례식에서는 극 동방송 이사장인 김장환 목사가 외국인 목회자를 대표해 추도사를 낭독했다. 그는 100만 명 이상이 모였던 서울 여의도 1973년 행사와 관련해 과거 김종필 전 총리가 “전 무후무한 청중이나 그 수가 중요한 게 아니다. 빌리 그레이엄의 설교를 통해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변화하고, 마음에 각인됐다는 게 진정한 의미다”라고 했다고 전했다. 다음은 김목사가 이날 추도사에서 말한 관련 내용 전문. 김종필 전 대한민국 총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역사상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감동에 매료된 전례가 없었다. 하지만 단지 그 군중의 크기나 규모보다 그 뿔어져 나와 쏟아 붓는 성령의 감동이 모든 참가자의 삶을 바꾸고, 당신의 목소리를 듣는 모든 사람들의 심령에 성경 말씀의 성스런 메시지가 심겨지는 것이라 확신한다”

Mr. Kim Jong Pil, the former prime minister of Republic of Korea has to say this,

"The crowd attracted were unprecedented in our history but more than mere size and scope of the meetings, I am convinced radiated intensity that amounted to outpouring of the Holy Spirit which will change the lives of each and every participant and plant the sacred message of Scriptures in the heart of all those who are within the sound of your voice."

역사에 다시는 혁명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한 적이 있다. 민주공화당 창당에 참여해 당의장이 됐고 국무총리 자리에도 올랐으며 아홉 번이나 국회의원에 당선됨으로써 명실공히 정치권력의 2인자가 됐지만, 흔히 있는 정치인들과는 생리적으로 달랐기 때문에 정치인이면서도 정치인이 아니었다. 혁명으로 시작해 18년이나 집권할 수 있었던 박정희는



1973년 말 그레이엄 목사가 JP에게 보내온 연하장

이 메시지는 그레이엄 목사의 1973년 5월30일 여의도 전도대회 당시 JP가 유럽 출장중으로 참석하지 못했음을 애석해 하며 ‘1973.6.23. 평화통일 외교정책’에 대해 미국 정치인 일부가 이를 너무 확대 해석하여 좁은 안목에서 우를 범할 것을 염려하며, 한미 혈맹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고 한국의 진정한 평화를 위해 그레이엄 목사가 미국 정치인들을 설득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을 담은 국무총리 명의로 편지(1973년 7월7일자, 이태섭 운정재단 부이사장 원문 제공) 글 중의 일부이다

왜 혁명 주역이던 김종필에게 권력을 넘길 절차를 밟지 않고 있다가 10·26으로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을까. 낭만적 정치인 김종필 손에 권력이 넘어갔다면 좀 더 합리적인 민주화가 가능하지 않았을까. 만일 그가 대권을 잡게 됐더라면 한국 정치가 오늘의 이런 꼴이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아쉬움을 떨쳐 버릴 수 없다. <조선일보 2018.3.3일자>